Global Business Report 08-029

중소기업 강국의 기업 지원정책

- 독일·오스트리아·대만 -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목　차

요　약 / 1

Ⅰ. 고용과 수출의 근간인 중소기업 / 2

2 | 1. 중소기업의 중요성
3 | 2. 글로벌 생산 시스템 확대와 기로에 선 중소기업
5 | 3. 중소기업 수출역량 제고와 수출다변화 노력

Ⅱ. 주요국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 6

12 | 독일
16 | 오스트리아
29 | 대만

Ⅲ. 시사점 / 39

39 | 1. 주요국의 중소기업 지원프로그램 개요
41 | 2.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사점

요 약

1960년대 이후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서비스업 등을 제외하고 제조업만을 고려한 경우도 고용과 사업체 수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2006년 기준 중소기업은 전체 제조업의 99.8%를 차지했다. 고용자 수도 전체 제조업 고용의 80%를 차지하며 대기업이 2002년 이래 약 1만 2000명의 고용 감소가 있었던 반면 중소기업은 54,590명의 고용증가가 발생했다. 또한 부가가치 중에서 중소기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 비율은 1990년대부터 평균 50% 이상을 넘으며 꾸준히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일익을 담당해 왔다.

이와 같이 우리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WTO와 FTA의 확대로 세계시장 통합이 진행되면서 기회와 동시에 위기를 맞게 됐다. 해외에 진출하는 대기업과 동반 진출해 해외시장 확대에 유리한 국면을 맞기도 했지만 국내시장개방은 중소기업이 국내시장에서 글로벌 기업과 더욱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었다.

중소기업의 수출이 2006년 1000억 달러를 초과 달성해 외연은 꾸준히 확대되고 있지만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고 있다. 이는 중소기업의 수출역량이 대기업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이다. 2002년에서 2007년까지의 대기업의 연평균 수출 증가율은 33.7%에 달한 반면 중소기업은 14.8%에 그쳤다. 이에 더해 중소기업의 수출은 지나치게 아시아 시장으로 편중되는 현상을 보이기도 한다.

최근 세계시장 통합이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중소기업의 글로벌 역량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독일, 오스트리아, 대만 등 견실한 중소기업들을 보유한 국가들은 자국 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를 위해 각종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국내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는 지속적으로 확대됐으나 단순히 수출시장개척과 생산비용절감에 국한된 측면이 있다. 특히 아시아 시장에 집중되는 중소기업의 해외투자와 수출은 저부가가치형이 다수여서 글로벌 역량을 향상시키는데는 한계가 있다.

우리 중소기업의 글로벌역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선진기업의 R&D, 디자인, 경영전략 등 고부가가치 활동을 경험하고 체득할 수 있는 EU, 미국 등 선진국 시장으로 시장진출 다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정부 및 유관기관도 이들 시장에 대한 관련 정보제공 및 지원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Ⅰ. 고용과 수출의 근간인 중소기업

1. 중소기업의 중요성

□ 중소기업의 국가경제 비중 증가

○ 1960년대 이후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발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1990년대 이후부터는 중소기업의 경제발전 기여도가 대기업의 기여도를 추월함.

- 부가가치 창출은 1990년대 중소기업이 50.3%를 차지했으며 중소기업 비중이 2000년대에 더욱 확대됨.

<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연대별 경제발전 기여율 >

기 여 율		1960년대 (63~69)	1970년대 (70~79)	1980년대 (80~89)	1990년대 (90~99)	2000년대 (00~05)	전 체 (63~05)
생산액	중소기업	26.5	32.2	45.7	50.3	53.8	49.5
	대 기 업	73.5	67.8	54.3	49.7	46.2	50.5
부가가치	중소기업	25.7	35.7	47.7	50.5	54.4	51.5
	대 기 업	74.3	64.3	52.3	49.5	45.6	48.5

주 : 기여율은 전체 증감분에 대한 중소기업(또는 대기업) 증감분의 백분비(%)임
자료 : 통계청,『광업・제조업통계조사』, 중소기업청 2008년 중기 육성시책 재인용

○ 서비스업 등을 제외하고 제조업만을 고려한 경우도 고용과 사업체 수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며 우리나라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함.

- 2006년 기준 중소기업은 340,066개로 전체 제조업 사업체 340,724개 중 99.8%를 차지함.

- 고용자 수도 2,748,628명으로 전체 제조업 고용의 80%를 차지했으며 대기업은 2002년 이래 약 1만2000명의 고용 감소가 있었던 반면 중소기업은 54,590명의 고용증가 실현

2. 글로벌 생산 시스템 확대와 기로에 선 중소기업

□ 세계경제의 통합화로 글로벌 경쟁에 몰리게 된 중소기업

○ WTO와 FTA 확대로 세계시장이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시장통합현상은 중소기업에게 기회와 동시에 위기를 제공함.

- 시장개방으로 중소기업이 국내시장에서 글로벌 기업과 더욱 치열한 경쟁을 하는 불가피한 상황에 놓이게 됨.[1)]

○ 글로벌 생산시스템 확산으로 기업들이 부품 아웃소싱을 국내외를 불문하고 최적의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에서 공급을 받기 시작함.

- GM의 부품조달시장에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등 국내 중소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나,

- 국내 대기업에 납품하던 중소기업은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기업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 처함.

□ 대기업에 비교 뒤처지는 수출역량 증가속도

○ 중소기업의 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6년에는 1000억 달러 수출을 달성했으나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하락하고 있음.

- 중소기업의 수출 증가율은 대기업 수출증가율과 비교할 때 증가 속도가 느리며 이는 중소기업의 수출역량 확대가 대기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뒤쳐지기 때문임.

* 2002~2007, 연평균 대기업 수출 증가율 : 33.7%
* 2002~2007, 연평균 중소기업 수출 증가율 : 14.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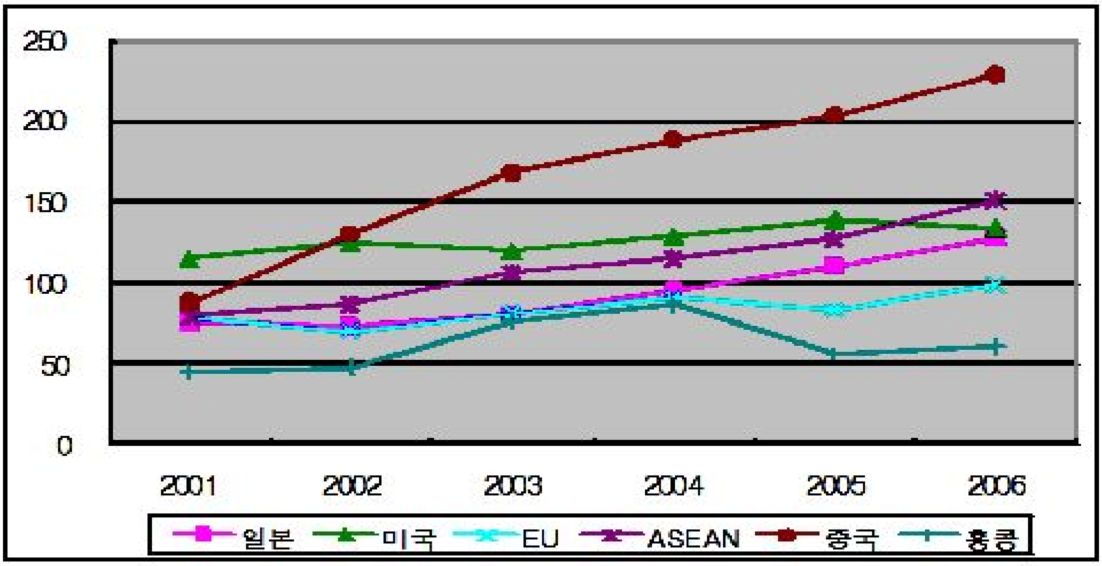
1) 오동윤 (2007) 중소기업의 수출역량 연구. 중소기업연구원 기본연구 07-19

□ **중국 및 아시아로 편중되는 중소기업의 수출**

○ 중소기업의 경우는 아시아 시장으로 수출이 확대되는 등 아시아 편중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중소기업 지역별 수출증가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3. 중소기업 수출역량 제고와 수출다변화 노력

□ 중소기업 비즈니스 활동의 글로벌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필요

○ WTO와 FTA 확산으로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 등 포괄적인 경제 통합 가속화로 관세 및 비관세장벽이 제거되기 시작해 중소기업이 글로벌 경쟁에 본격적으로 노출되기 시작함.

○ 특히 우리나라 대기업을 포함한 글로벌 기업들이 핵심역량을 제외한 비즈니스 활동의 모든 영역을 국적을 불문하고 최적의 외부기업에 의뢰·조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최근의 세계시장 통합의 글로벌 환경 속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중소기업의 글로벌 역량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함.

※ 코아주얼리

- 2007년 매출 237억 원을 전부 수출에서 달성
- 이탈리아 프리랜서 디자인과 뉴욕지사의 디자이너들을 활용 자체 디자인제품을 생산
- 최근 귀금속메카로 떠오르는 두바이 고급매장의 15%를 차지함.

자료 : 중앙일보, “이젠, 글로벌 강소기업이다.” 2006.7.17

□ 해외 주요국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 연구 필요

○ 수출·투자진출 등 직간접적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중소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는 정부 및 유관기관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 이 보고서는 해외 주요국의 중소기업 진흥 정책과 수출 지원 정책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함.

Ⅱ. 주요국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독 일

1. 중소기업 현황

□ 중소기업 정의

○ 독일 연방 경제 기술부의 자료에 따르면, 독일에서 중소기업은 크게 소기업과 중기업으로 구분될 수 있음.

○ 이중, 소기업은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이고 연간 매출액이 백만 유로 미만인 기업을 의미하며, 중기업은 종업원 수가 10-499명 사이이며 매출액인 5천만 유로 미만인 기업을 의미함.

□ 중소기업 경제활동 개요

○ 358만 개의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들이 이러한 중소기업에 속하며, 주로 수공업, 소규모 제조업, 유통업, 관광업, 서비스업, 자유직업 분야에 많이 분포되어 있음.

○ 독일연방 경제기술부에 의하면 이들 중소기업이 독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수치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전체	중소기업	중소기업 비율
기업 수(2007년 말)	359만 개사	358만 개사	99.7%
매출세 납부 의무 기업수 (2006년 말)	3,099,493	3,089,901	99.7%
매출액 (2006년 말)	4조 9300억 유로	1조 8890억 유로	38.3%
종업원 수 (2006년 말)	2856만 명	2019만 명	70.7%
직업훈련생 (2006년 말)	165만 명	137만 명	82.7%
자영업자수 (2006년 말)	–	413만 명	전체 기업수의 11.1%
국민 경제에서 순부가가치 창출 기여도	–	–	47.2%

자료 : 독일 본 중소기업 연구소 IfM Bonn, 2006

2. 중소기업 산업 육성 정책

□ 중소기업 산업 육성 정책 개요

○ 독일은 연방정부차원에서 중소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통일적인 정책을 추진하지는 않고 있으나, 중소기업 창업을 용이하게 하고, 전반적인 세제 개혁을 통해 세금 부담을 경감해주는 방향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예를 들면 실업 문제 해결책의 일환으로 실업자가 창업을 할 경우에 일정 기간 동안 생계비 보조를 해 줌으로써 창업을 장려하는 정책이 있으며, 법인세 감면과 세금 공제 대상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의 전반적인 재정 부담을 경감시키는 정책 등이 있음.

○ 또한 2005년 이후 독일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이니셔티브 (Mittelstand Initiative)"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독일 경제의 중추를 이루고 있는 중소기업의 활동 여건을 총체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중소기업 이니셔티브 (Mittelstand Initiative)"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 중소기업에 우호적인 방식으로 제도 정비
- 중소기업 설립에 필요한 제도적 절차 간소화
- 창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강화
- 이노베이션 역량 강화
- 인력 교육 강화
- 중소기업의 재정상태 향상을 위한 정책
- 벤처 캐피탈의 투자 활성화 정책

□ 중소기업 산업 육성 정책 사례

○ 중소기업에 우호적인 방식으로 제도 정비

- 투자에 대한 세금 공제폭 확대 (20%-30%로 인상)
- 가내수공업과 소규모 서비스 직종에 대한 세금 공제폭 확대
- 에너지 효율을 위한 건물 개조 지원규모 확대, 2009년까지 연간 14억 유로 규모 (수공업자들과 건설업자들에게 유리한 조건)
- 구동독 지역에 대한 투자지원금 제도 연장 및 확대
- 상속세 개정으로 중소기업의 상속세 부담 경감과 법인세 감축

○ 중소기업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절차 간소화

- 제1차 및 제2차 "중소기업 부담경감을 위한 법" 제정을 통해 통계 관련 의무 대폭 축소, 재무관리 의무 대폭 경감 등 35개 부분에서 중소기업의 의무적 행정절차 폐지 및 간소화 추진
- 제3차 "중소기업 부담경감을 위한 법"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시적으로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위원회를 운영하여, 기업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있음.
- 등록 절차 간소화 (상업 등기소, 보험 등에 대한 등록 창구 일원화) 추진
- 법인 설립 절차 간소화

○ 창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및 경영 지원 강화

- "Startothek"이라는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창업에 관련된 서류, 인증 및 허가, 규정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창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함.
- 여성 창업 장려

- 실업자에 대한 창업보조금(Gruendungszuschuss)제도 실시

- 저당금 한계 설정을 통해 자영업자들의 위험 부담 경감

- 대학이나 연구소에서의 창업지원 강화

- 멀티미디어 분야에서의 창업지원 강화

○ 이노베이션 역량 지원

- "혁신과 성장을 위한 위원회"를 연방 수상 산하에 설치,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제고를 위한 정책 자문 실시

- 중소기업의 기술력 제고를 위한 지원금 재원 확대

- 중소기업간 협력 및 중소기업과 연구소 간의 협력 강화를 위한 지원

- "경제와 학문의 만남" 프로젝트를 통해 네트워크 확대 지원

- 연방정부에서 추진하는 핵심 기술 프로그램에 대한 중소기업의 참여 확대

- 산학협력을 장려하기 위해 대학이 중소기업 발주 연구를 수행할 경우 연구 프리미엄 제공

- 독일 연방 중소기업 기술청의 기술 서비스 역량 강화

○ 인력 교육 강화

- 국가적 차원의 직업교육 및 전문가 육성 프로그램 지속적인 추진

- 다양한 직업에 대한 직업교육 기회 제공

- 직업교육과 재교육의 연계 강화

- 직업 훈련 이수자들에게 학사 수준의 재교육 기회 제공

- EU의 교육과정 통일화 정책에서 현장 실습을 중시하는 독일 이중 교육 시스템(Dual System)의 현 체제를 유지할 것을 추진

- 고령 노동자의 재교육 강화를 통한 고용기회 확충

- 안정적인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가족 친화적 구조개선 지원 (작업장 내 보육시설 확충 등)

○ 중소기업의 재정상태 향상을 위한 정책

- 2008년 1월 1일부터 창업자를 위한 중소기업 은행의 소규모 신용 제공 프로그램인 KfWStartGeld(중소기업 창업자금) 실시

- 2007년 7월 1일부터 창업자들의 대여 자금 중 책임한도 범위를 50%로 감축

- ERP- Innovation 프로그램을 통해 저렴한 이자의 창업자금 지원

- 에너지 절약 시스템 도입을 위한 저렴한 이자의 자금 지원

○ 벤처 캐피탈의 투자 활성화 정책

- 일반기업이나 투자자들과의 협력을 통한 창업자 및 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펀드 확대(하이테크-창업지원 펀드, ERP-Startfonds 등)

- 젊은 벤처기업 투자 확대를 위한 지역단위 네트워크인 "혁신을 위한 파이낸싱" 프로그램 운영

3. 중소기업 수출진흥 정책

□ 중소기업 해외 활동 지원에 초점

○ 독일 수출지원 정책은 예산과 인력이 제한되어 있는 중소기업의 해외 활동을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대략 아래의 표와 같은 세 가지의 중점 지원 분야로 구분될 수 있음.

<독일 수출지원 정책의 특징>

중점 지원 분야	특징
위험 최소화	o 외국 진출에 수반되는 위험부담을 최소화하는 수단 제공 - 연방정부차원의 수출보증 서비스 제공 (헤르메스 보증) - 개발도상국과 개별 투자 보호조약을 체결하여 독일 투자자본 보호
대외 진출 활동에 대한 저렴한 융자	o 외국에 대한 투자, 특히 개발도상국에 투자할 경우 저리 융자 혜택제공 - 예컨대, 중소기업은행 (KfW)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투자뿐 아니라 자본재 수출 비용 등도 저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음.
해외 전시회 참여 지원	o 새로운 시장 개척 및 비즈니스 파트너 탐색의 장으로 해외 전시회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함 (2/3 이상의 독일 기업이 정기적으로 해외 전시회 참가) o 전략적으로 중요한 전시회에서는 정부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참가함. 이러한 결정에는 각 산업협회들의 의견이 결정적 역할을 함. o 연방정부는 독일 전시산업협회(AUMA) 및 주정부와 협력 매년 전시회 참가지원을 하고 있음.

○ 이외에도, 연방 정부는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B2B 미팅, 방문사절단을 정기적으로 조직하고 있으며, 중국과 인도를 포함한 11개 국가에 "연구협력소"를 설치하여 국제 기술협력 네트워크 구성을 지원하고 있음.

○ 또한 특히 동독의 중소기업을 위해서 마케팅 지원 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음.

○ 그리고, 독일 정부에서는 경쟁력 있는 산업 위주의 집중적인 수출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음.

- 독일 정부는 독일이 세계적으로 앞서나가 있을 뿐 아니라, 미래 전망이 밝은 재생에너지 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독일 연방 경제기술부에서는 독일 에너지 에이전시 유한회사(Deutsche Energie-Agentur GmbH)와 함께 "Renewable Energy Made in Germany" 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이 프로그램은 독일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2] 기업들에게 학술정보, 해외 시장 정보, 해외 전시회 정보를 제공해 주며, 주요 전시회에 독일 국가관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집중지원해 주고 있음.

□ 연방정부 수출진흥 기관 및 활동

○ 연방경제기술부(BMWI : Bundesministerium fuer Wirtschaft und Technologie) : 한국의 산업자원부에 해당하는 독일의 연방 정부 부서로서, 수출지원과 관련된 정책의 기본 틀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고, 관련기관들의 업무를 협력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함.

○ 독일대외무역진흥청(Bfai : Bundesagentur fuer Aussenwirtschaft)
- 지위 : 연방 경제기술부 산하 독립 기관
- 설립연도 : 1955년
- 조직구성 : 본사 4국 3부서, 해외 12개 지역본부 50개국 주재
- 직원 : 본사 150명, 해외 120명 (본사파견: 60명, 현지직원: 60명)
- 예산 : 2천 1백만 유로(2007년), 100% 정부 예산

2) Wind energy, hydropower, geothermal, photovoltaics, solar thermal, solar thermal power plants, biogas, biofuels, solid biomass 등

- 주요사업 : 독일 기업의 해외 진출 시 필요한 각종 해외 무역정보 제공과 다양한 행사 주관

독일대외무역진흥청 프로그램

① 통합 무역정보 포털 (ixpos.de) 운영

- 독일에서는 다양한 민간기관과 주정부가 수출진흥업무를 각기 수행해 해외시장 정보의 산발적인 제공됨. 이에 정보 채널 일원화의 필요성이 대두돼 Bfai 에서 통합 무역정보포털인 ixpos.de를 운영 포괄적이고도 전문적인 해외무역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ixpos.de에서 제공되는 무역정보는 전문적인 시장조사 정보에서부터 해외 전시회, 해외 입찰, 중요 사절단 정보 등을 포괄하고 있음.
- 연방정부, 지역·산업협회 및 주정부 등 250여개 기관이 포털에 회원으로 참여

② 인터넷 B2B 플랫폼 운영(e-trade-center.de)

- 독일 기업과 해외 기업이 희망하는 협력사항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에 게재하고, 사업 파트너를 찾는 B2B 협력사이트임.

③ 지원 프로그램 DB운영 (foerderdatenbank.de)

- 독일 연방 경제기술부가 운영하는 정보 사이트로서 유럽 연합, 연방정부, 주정부 및 민간기관의 지원프로그램이 총 망라되어 있어, 지원 유형(보조금, 융자, 보증 등)과 지원 분야 (수출, 투자, 창업), 지역 (해당 주)을 입력하면 해당되는 지원 프로그램을 일목요연하게 찾아볼 수 있음.

□ 지자체 및 기타 민간단체 수출진흥 활동

○ 주정부

- 독일 16개 주에서는 개별적으로 수출진흥 및 투자진흥 기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음. 주별로 수출 및 투자 진흥을 담당하는 기관은 다음과 같음.

<주별 수출 · 투자 진흥 기관>

연방주명	수출·투자 진흥 기관
Baden-Württemberg	Baden-Württemberg International: 수출 및 투자 진흥업무 병행
Bayern	Bayern International : 수출 및 투자 진흥업무 병행
Berlin	Berlin Partner GmbH: 투자유치 업무 전담
Brandenburg	ZukunftsAgentur Brandenburg GmbH: 투자 유치 업무 전담
Bremen	Bremer Investitions-Gesellschaft mbH: 투자 유치 업무 전담
Hamburg	Aussenwirtschaftszentrum : 별도의 조직 없이 시정부에서 운영하는 정보 사이트
Hessen	별도의 독립된 기관 없이 주정부, 상공회의소, 주립 은행에서 협력하여 수출진흥사업 사업진행
Mecklenburg -Vorpommern	Invest in Mecklenburg-Vorpommern GmbH: 투자 진흥업무 전담
Niedersachsen	주정부의 산업, 노동, 교통부에서 수출진흥 프로그램을 전문으로 하는 n-export 서비스 실시
Nordrhein-Westfalen	NRW.International GmbH: 수출 및 투자 진흥업무 병행, NRW-Export (수출진흥), NRW-Invest (투자진흥) 운영
Rheinland-Pfalz	별도의 독립된 기관 없이 주정부, 상공회의소, 주립 은행에서 협력하여 수출진흥사업 사업진행
Saarland	Zentrale für Produktivität und Technologie Saar e. V. : 해외 전시회 참가 등 해외 마케팅 활동 지원 프로그램 운영
Sachsen	Wirtschaftsförderung Sachsen GmbH: 수출 및 투자진흥업무 병행
Sachsen-Anhalt	주정부 차원의 수출 지원 업무
Schleswig-Holstein	Wirtschaftsförderung und Technologietransfer Schleswig-Holstein GmbH: 수출, 투자진흥, 기술교류 업무 담당
Thüringen	Landesentwicklungsgesellschaft (LEG) Thüringen mbH: 투자진흥업무 담당, 수출진흥업무는 주정부의 담당부서에서 수행함.

○ **독일 상공회의소** (AHK : Deutsche Auslandshandelskammer)

- 한국의 상공회의소와 유사한 기관으로 독일 기업의 해외 거점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독일 기업의 방문 사절단 등을 조직함. 총 80개국에 120개의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종사자 수는 1600명에 이름.

○ **독일전시산업 협회** (AUMA : Aussstellungs- und Messeaussschuss der Deutschen Wirtschaft e.V.)

- 독일 전시산업 관련 업체들의 대표 협회로 1907년 결성됨. 독일 국내 전시산업 육성 뿐 아니라, 독일 전시회의 해외 진출 및 독일 중소기업의 해외 전시 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 2006년도의 경우, 연간 총 3600만 유로를 지원하였으며, 총 279개 해외전시회를 지원하였음.

○ German Center

- 독일 산업협회 (BDI), 독일 상공회의소 (DIHK), 동아시아 협회 (OAV) 등 3개의 기관이 참여하는 독일 아시아태평양 경제위원회 (APA)의 제안으로 시작

- 현재 9개의 도시 (베이징, 상하이, 요코하마, 자카르타, 모스크바, 멕시코시티, 두바이, 델리)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해외 진출 독일 중소기업에게 사무실 및 전시장을 싼 임대료로 제공하고, 경영·마케팅을 지원함.

- 독일의 주요 주립은행들이 공동으로 출자한 재원으로 운영됨.

오스트리아

1. 중소기업 현황

□ 중소기업 정의

○ 2003년 5월 6일 EU 위원회가 새로 채택한 기준(2003/361/EC)에 따라, 2005년 1월 1일부터 오스트리아에서도 종업원 수 기준, 매출액 기준, 자산 총계 기준의 중소기업 분류 방식을 따르고 있음.

○ 아래 분류 기준에 따라 개별 기업들은 미세기업, 소기업, 중기업 또는 대기업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이 중 대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군들을 중소기업이라 명함.

○ ①과② 또는 ①과③의 기준을 충족시킬 경우 중소기업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종업원 수 33명, 매출액 8백만 유로 기업의 경우 소기업으로 분류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함.

<오스트리아의 기업 분류>

구분	종업원 수(①)	매출액(②)	자산 총계(③)
미세기업	9명 이하	2백만 유로 이하	2백만 유로 이하
소기업	9 ~ 49명	2~10백만 유로	2~10백만 유로
중기업	50 ~ 249명	10~50백만 유로	10~43백만 유로
대기업	250명 이상	50백만 유로 초과	43백만 유로 초과

자료 : 오스트리아 연방상공회의소(WKOe)

○ 이 밖에 오스트리아에는 중소기업의 분류 기준으로 "독립성"이라는 별도의 항목을 적용하고 있음.

- 그룹 계열사 또는 자회사에 적용되는 同 항목은 이들 회사들이 중소기업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상기 기준 이외에 외부 지분율 또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외부인 보유 비율이 25% 미만일 것을 규정하고 있음.

□ 중소기업 경제활동 개요

○ 전체 기업 중 중소기업 수의 비중이 2006년 말 기준 99.6%로 매우 높은 편이며, 고용 비중은 66.0%에 달함.

- 최근 5년간 중소기업의 숫자는 12.6% 증가하고, 피고용자 수는 3.4% 증가함.

<중소기업 수 및 비중 증감, 2002-2006>

(단위 : 개, %)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중소기업 수(개)	252,535	265,295	269,383	278,683	284,311
전체기업 수(개)	253,502	266,258	270,355	279,678	285,367
중소기업 비중(%)	99.62	99.64	99.64	99.64	99.63

자료 : 오스트리아 통계청(Statistik Austria)

<중소기업 매출액 증감, 2002-2006>

(단위 : 백만 유로, %)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중소기업 매출액	265,093	278,366	289,248	311,615	325,597
전체기업 매출액	438,980	451,477	475,210	515,589	541,128
중소기업 비중(%)	60.39	61.66	60.87	60.44	60.17

자료 : 오스트리아 통계청(Statistik Austria)

<중소기업 고용인원 증감, 2002-2006>

(단위 : 천 명, %)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중소기업 고용인원	1,600	1,618	1,636	1,643	1,654
전체기업 고용인원	2,426	2,438	2,471	2,486	2,505
중소기업 비중(%)	66.01	66.37	66.21	66.09	66.03

자료 : 오스트리아 통계청(Statistik Austria)

○ 2006년 한 해 동안 새로 설립된 신생 기업의 수는 총 29,109개로 집계되었는데, 5년 전인 2002년에 비해 12.7% 증가한 수치임.

- 최근 수 년 동안 신생 기업의 숫자는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경제 여건의 변화와 아울러 정부 주도의 다양한 창업 장려 정책이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현재 IT, 뉴미디어, 광고 부문에서의 "신규고용(New Jobs)"이 상승 추세를 누리면서 신규 창업 붐을 주도하고 있음.

<중소기업 투자액 증감, 2002-2006>

(단위 : 백만 유로, %)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중소기업 투자액	17,729	18,792	20,175	21,265	21,313
전체기업 투자액	29,155	29,794	33,815	34,244	34,797
중소기업 비중(%)	60.81	63.07	59.66	62.10	61.25

자료 : 오스트리아 통계청(Statistik Austria)

<신규 창업 기업, 2002-2006>

(단위 : 개)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제조업	7,271	7,929	9,771	10,369	10,212
유통업	7,506	9,338	8,475	9,094	7,824
은행/보험업	16	8	7	4	2
교통/운송업	1,295	1,400	1,453	1,520	1,383
여행/숙박/요식업	2,837	2,948	3,041	2,977	2,727
정보/컨설팅업	6,902	6,698	6,993	7,037	6,961
계	25,828	28,322	29,740	31,001	29,109

자료 : 오스트리아 연방 상공회의소(WKOe)

2. 중소기업 산업 육성 정책

□ 중소기업 산업 육성 정책 개요

○ 오스트리아는 유럽 연합 회원국의 확대로 유럽의 변두리에서 중심 지역으로 위상을 강화하는 기회를 얻게 되었고, 운송 및 물류 분야의 우수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신시장의 확보와 활용에 매우 발 빠른 행보를 보여 왔음.

- 지정학적, 역사적 배경에 따라 인접한 중·동부 유럽 국가들과 밀접한 경제적 유대 관계를 맺어 왔던 바, 이 지역 국가들의 2004년 유럽 연합 가입은 중소기업 위주의 오스트리아 경제에 중요한 성장 동력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사회 환경적 안전망을 유지하는 토대 위에서 생산성 향상과 고용 신장을 달성한다는 리스본 의제(Lisbon Agenda)를 반영한 오스트리아 카르디프 보고서(Austrian Cardiff Report)를 토대로 정부는 상품 시장과 노동·자본 시장에 걸친 야심찬 개혁 프로그램을 전개함.

□ 중소기업 산업 육성 정책 사례

※ 오스트리아의 중소기업 산업 육성 정책 기조는 조세개혁, 창업지원, 교육 등의 분야에서 친기업적인 정책을 유지하여 중소기업 육성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임.

○ 조세 개혁

- 2004~2005년에 취해진 조세 개혁은 2단계에 걸쳐 약 30억 유로에 달하는 조세 부담 축소 효과를 가져왔는데, GDP 대비 조세 비율을 40%까지 낮추어 간다는 정부의 장기 전략의 일환임.
- 2004년의 소득세 개혁은 단독 소유 및 참여지분의 내부 유보

이익에 대한 과세 우대 조치를 포함하며, 법인세율은 기존의 34%에서 2005년부터 25%로 인하됐음.

- 이 법인세율 인하와 함께 기업간 이익과 손실(해외 자회사의 손실 포함)을 상쇄시키는 “Group Taxation" 제도 도입으로 기업 본사 소재지로서 오스트리아의 매력을 높이는 효과를 발휘함.

Group Taxation

- 오스트리아 정부가 외국인 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2005년 조세 개혁 때 도입한 제도로, 어느 한 기업이 오스트리아에 지역 본부를 가지고 있고 그 계열사(주로 생산 기지들)들이 인근 중동부 유럽 국가들에 소재해 있을 경우 계열사에서 발생한 손실을 오스트리아 지역 본부의 손실로 인식할 수 있도록 세제상 허용함으로써 실질적인 절세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임.

- 인건비 등의 이유로 생산 기지의 유치는 포기하는 대신 마케팅 및 지역 본부 등의 유치에 집중하겠다는 오스트리아 정부의 정확한 현실 인식 및 전략적 선택에 따른 결과임.

- 오스트리아의 해외 투자 유치를 담당하고 있는 ABA(Austrian Business Agency)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중동부 유럽 지역 본부를 오스트리아에서 운영하는 글로벌 기업 중 독일, 일본 기업을 중심으로 ″Group Taxation″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업체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이 밖에 중소기업의 투자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가 개별 州정부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음. 그리고 사업에 대한 직접적 효과 유발이 가능한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자본 출자와 함께 연구와 교육에 대한 과세 공제도 크게 상향 조정됨.

- 현재 2010년 예정으로 제 2차 조세 개혁이 예정되어 있는데, 금번 조세 개혁은 주로 중산층의 소득세 부담 완화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창업비용 축소

- 창업에 수반되는 행정처리 비용은 현재 유한회사(GmbH)의 법적 등기를 제외한 개인 사업자의 창업 시 면제

- 이와 관련하여 오스트리아 정부는 2010년까지 회사의 운영과 관련한 공공행정 비용의 25% 절감을 목표로 관련 법규 및 절차의 개편을 추진 중에 있음.

- 현재 오스트리아에서 가장 빈번한 법인 형태인 유한회사(GmbH, Gesellschaft mit beschraenkter Haftung)를 설립할 때 필요한 법정 최소 자본금을 현행 3만5천 유로에서 1만 유로로 인하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 중에 있음.

- 오스트리아의 유한회사 설립 최소 자본금은 유럽 내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으로 개인들의 신규 창업 활성화를 가로막는 주요 요인 중의 하나로 지적되어 왔음.

- 특히 인접국 독일이 2008년 중 유한회사 설립 최소 자본금을 현행 2만5천 유로에서 1만 유로로 인하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등의 현실적 상황을 감안할 때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이 그 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 법무부 장관인 Maria Berger에 따르면, 2009년 초 관련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 실무 작업이 진행 중으로 빠르면 2010년부터 同 개정안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창업 규제 대상의 완화

- 2002년 8월 1일 발효된 "수공업, 도소매, 서비스, 제조업법(Crafts, Trade, Service, Industry Act)" 개정법에 의해 광범위한 업종이 창업 규제 대상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됨.

- 이종 사업 부문의 융합 추세를 반영하여 최초 등록 업종 이외의 서비스 제공이 허용되고, 신생 기업에 대한 생산 설비 면허 절차의 단축(필요 서류의 축소)과 업무 시간 연장이 행해짐.

수공업, 도소매, 서비스, 제조업법 개정 내용
– 상업 행위에 대한 자격 요건의 전면 철폐 – 일괄처리 창구 원칙의 모든 지역 적용 – 전국적인 등록, 행정 처리, 신청의 온라인 토대 구축 – 사후적 사업 경험 증빙을 사업 자격 요건으로 인정 – 과거 파산자의 창업 금지 규정 철폐(범죄의 경우는 제외)

○ 중소기업 진흥법 2006

-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중소기업진흥법(KMU-Foerderungsgesetz) 2006"에 따라 중소기업들이 특정 분야에 재투자한 이익의 경우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됨. 전체 이익의 10%를 한도로 적용될 동 조항에 의해 오스트리아 중소기업들은 총 1억4천만 유로의 세금 감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또한 2007년 회계연도부터 최대 3년까지의 손실 발생분을 이익이 발생한 회계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게 하였으며, 2007년 이전 발생 손실분에 대하여는 기간의 제한 없이 공제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이 조치로 4천만 유로의 세금 감면 효과가 기대됨.

- 소기업의 면세 대상 소득 규모를 이전의 연 2만2천 유로에서 3만 유로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약 십만 개의 오스트리아 기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됨.

○ AWS(Austria Wirtschaftsservice GmbH)

- 2002년 10월 설립된 연방 정부 산하 기관으로, 기업 입지 조건의 개선과 기업 경쟁력의 제고, 장기적인 고용 안정을 목적으로 기존의 4개 기관을 통합하여 설립됨.

- 창업에서부터 기업 공개에 이르기까지 기업 성장 단계별로 필요한 금융(보조금, 저리 대출, 보증 채무 인수, 지급 보증 등) 및 각종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 지원 센터이며, 특히 2004~2006년의 3개년 프로그램을 통해 혁신 및 신기술 분야 관련 프로젝트를 집중 지원하였음.

- 同 프로그램 기간 동안 집행된 지원금 규모는 882백만 유로(2004년) → 1,041백만 유로(2005년) → 1,305백만 유로(2006년)로 꾸준히 규모가 증가하였으며, 지원받은 업체에서 창출된 일자리 규모도 105,600명(2004년) → 137,900명(2005년) → 139,600명(2006년)으로 꾸준히 증가하였음.

- 지원받은 업체 중 65%가 9명 이하의 미세 기업(Micro Company)이며, 20%가 종업원 규모 10~49명의 소기업인 통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중소기업의 비중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 주 업무가 신규 창업 지원으로 연 평균 1천8백 개의 업체의 창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 2만5천 유로 한도 내에서 저리의 창업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마이크로 크레디트 제도를 운영함.

- 시행 첫 해 이용 업체 수 35개(537,000유로)를 기록했던 同 제도는, 2007년 들어 9개월 동안 이용업체수 83개(1,757백만 유로)의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음.

- 이 밖에 AWS가 현재 운영 중인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음.

* UniInvent : 舊 교육학문문화부(BMBWK : 2007년 3월 1일 이후 교육문화부와 학문연구부로 분리되었음) 및 경제노동부(BMWA) 주관으로 시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대학 등 연구기관이 개발한 신기술의 특허 신청 및 등록에 따르는 비용을 부담하고 신제품의 기술적 특장점과 경제적 잠재력에 대한 검토 분석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음. 연구 활동과 그 상업적 활용 사이의 연결 고리를 제공함으로써 대학 연구 결과의 상업화 성공 사례로 꼽히고 있음.

* Seed Financing Programme : 교통혁신부(BMVIT) 주도의 프로그램으로 혁신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신생 기업의 성장과 발전 단계에서 맞춤식 창업 금융을 통한 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함.

* Double Equity-Guarantee Fund : 중소기업의 주식 자본(창업시기 및 초기 단계) 확충을 위한 추가 자금 지원 목적.

○ EC Austria

- 중소기업에 인터넷 기반 e비즈니스 프로세스의 확대를 위한 정보와 서비스, 행사를 소개하는 쌍방향 플랫폼으로서, 1999년 처음으로 문을 연 이래 2002년 유럽 연합 집행 위원회로부터 162개 e비즈니스 프로젝트 중 대표적인 프로젝트로 선정될 만큼 오스트리아 대표적 e비즈니스 포탈로 자리매김하였음.

- 오스트리아 경제노동부(BMWA), 연방 상공회의소, 그리고 많은 수의 민간 및 공공 부문 주체가 참여하여 민관 합작의 틀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쌍방향 인터넷 포탈인 http://economyaustria.at를 통해 핵심 중소기업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이 포탈에서 e비즈니스 솔루션의 성공적 적용 사례들을 내려 받는 것이 가능함.

3. 중소기업 수출진흥 정책

□ 중소기업 수출진흥 정책 개요

○ 오스트리아의 경우 2006년 말 기준으로 전체 기업 중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99.6%에 이를 정도로 내수 및 수출 모든 면에서 중소기업들이 차지하는 역할이 큰 국가임.

- 반면 이들 중소기업들 특히 종업원 규모 49인 이하의 소기업들은 대부분 수출과 관련한 충분한 경험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등 마케팅 및 진출 전략 부문에 있어서 국제적 경쟁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임.

○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과 관련한 오스트리아 정부의 주요 입장은 다음의 4개 사항으로 집약할 수 있음.

① 상대적으로 저조한 수출 기업수의 증대
② 수출 지역 다변화를 통한 지역적 한계의 확대
③ 주로 관광분야에 머무르고 있는 서비스 수출의 다양화 및 확대
④ 대외 직접 투자의 산업별, 지역별 다변화

○ 이러한 현실적 상황을 감안하여 오스트리아 정부는 중소기업들의 수출 및 해외 투자와 관련한 다양한 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 제공, 연관 중소기업들의 네트워킹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해외에서의 전시회 참가 지원 또는 오스트리아관 직접 운영 등을 통해 직접 또는 간접적인 해외 마케팅 활동 수행 및 지원을 하고 있음.

○ 이 밖에 중소기업 수출의 가장 큰 애로점 중의 하나인 파이낸싱 및 대금 지급 보증 등과 관련하여 특별 펀드 및 오스트리아 통제 은행(Control Bank) 등을 이용한 금융 지원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음.

□ **중소기업 수출진흥 정책 사례**

○ Go International

- 오스트리아 정부가 중소기업의 수출진흥을 목적으로 2003년에 시작한 중소기업 국제화 촉진 프로그램으로 2007년까지 총 5천만 유로의 예산이 책정되어 2천8백만 유로가 집행되었음.

- 오스트리아 통제 은행(Control Bank), ADA(Austrian Development Agency) 등 다수의 관련 기관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오스트리아 연방 상공회의소(WKOe)가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오스트리아 연방 상공회의소는 “시장 진입”, “노하우 및 인재 관리”, “비즈니스 개설 및 준비”, “기타 일반 사항(General Conditions)" 등 네 개의 大분류 기준에 의거 28개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해외 마케팅 측면에서 2006년까지 同 프로그램은 총 594건(참가 오스트리아 기업 수 1만1천1백 개)의 해외 전시회를 지원하였으며, “중소기업 수출 지원 패키지"를 통해 총 1천2백 건 이상의 중소기업 수출을 직접 지원하였음.

○ 중소기업 법률 서비스 지원 시스템(JUS-Net KMU)

- 2004년 동유럽 국가들의 유럽연합 가입에 맞추어, 중소기업들에게 동유럽 지역의 법률, 제도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나은 사업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정부와 민간의 주체들이 참여하는 온라인 중소기업 법률 지원 서비스가 발족함.

- 법률 안내서인 “중소기업을 위한 기업 설립과 법적 기초 여건의 안내 -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체코, 헝가리”가 오스트리아 법무부와

JUS-Net KMU의 협력으로 발간되었고, 4개 신규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중소기업 관련 법규의 점검을 통해 오스트리아 국경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 Exportfonds GmbH

- 오스트리아의 대표적인 수출 금융 지원 프로그램으로 오스트리아 재무부가 주관하고 있음. 전년도 총수출실적의 30% 한도 내에서 저리의 수출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2006년 중반 관련 규정의 개정으로 수출 금융 관련 수수료가 대폭 인하됨으로써 이를 이용하는 중소기업들에게 더욱 좋은 조건의 금융 지원을 가능케 하였는데, 현재 연평균 1천8백여 개의 중소기업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음.

- 717백만 유로(2004년) → 764백만 유로(2005년) → 824백만 유로(2006년) → 852백만 유로(2007년 11월) 등으로 그 이용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오스트리아 통제 은행(Austria Control Bank)

- 중소기업들의 수출에 따른 대금 회수와 관련한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수출을 보다 활성화시킬 목적으로, 오스트리아 통제은행에서는 수출대금을 지급 보증하는 일종의 “수출 보증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수출자 및 수입자에 대한 업체 심사 자료를 토대로 업체별 한도 금액 및 보험료율이 정해지는 바, 제품 및 서비스를 수출하는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적은 비용으로 수출 대금의 회수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됨.

○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 증진 교육 등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

- 학교 관련 조치 : 소기업 관리자들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확대 이외에 초등 및 중·고등학교 과정에서 기업가 소양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추가되었음.

- 기업가 활동 교육 영역에서 학교 기반의 거의 모든 조치들은 중소기업과 그들의 필요 사항들에 맞추어져 운영되고 있음.

- 교육 내용은 기업가로서의 필수 능력과 개인적인 기량의 개발 방법과 관련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그 사례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기업가 활동 교육 추진 : 뉴욕의 기업가 활동 교육 재단과 함께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 운영 중.

* 직업훈련법(Vocational Training Act) 개정(2003년) : 졸업시험 응시 연령 하향 조정, 견습생들의 해외 훈련 프로그램 참여 기회 부여.

* 분사 센터(Spin-off Centers) : 기업가 양성과 관련된 대학 시설을 통합하여 다른 주체들과의 연계 활동 전개(고등기술 대학, 민간 기업체, 민관 진흥 센터, 각종 상공회의소 등의 학습 과정 등).

대 만

1. 중소기업 현황

□ 중소기업 정의

○ 중소기업인정표준(中小企業認定標準) 제2조에 의거, 합법적으로 회사등록수속을 이행하고 아래와 같은 표준에 부합하는 사업체를 중소기업으로 정의.

업종 분류	조건사항	
	자금규모면 or	고용인규모면
제조업 건설업 광업·토석채굴업	실질자본금이 8천만 대만달러 이하	정식 고용인이 200명 미만
농·림·어업, 목축업 수도·전기·연료업 도·소매업 숙박·요식업 운수창고· 통신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입대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의료보건·사회복리 서비스업 문화운동·레저 서비스업 기타 서비스업	사업 첫해 영업액이 1억 대만달러 이하	정식 고용인이 50명 미만

자료 : 中小企業認定標準

□ 중소기업 경제활동 개요

○ 최근 5년간 중소기업 수 및 전체기업 중 비중 증감

- 중소기업 증감 추세 분석에 의하면 2009년도 대만의 중소기업 수는 135만 개사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며, 판매액은 13조 8천억 대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함.

<중소기업 수 증감, 2002-2006>

(단위 : 개)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중소기업 수	1,104,706	1,147,200	1,176,986	1,226,095	1,244,099
전체기업 수	1,130,525	1,172,633	1,204,343	1,253,694	1,272,508
중소기업 비중(%)	97.7	97.8	97.7	97.8	97.8

자료 : 2007年 中小企業白皮書

<최근 5년간 중소기업 매출액 증감>

(단위 : 백만 대만달러)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중소기업 매출액	7,495,287	8,708,904	9,726,721	10,000,220	10,241,215
전체기업 매출액	25,395,636	27,633,536	31,755,313	33,941,857	34,326,070
중소기업 비중(%)	29.5	31.5	30.6	29.5	29.8

자료 : 2007年 中小企業白皮書

<최근 5년간 중소기업 수출액 증감>

(단위 : 백만 대만달러)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중소기업 수출액	1,350,884	1,327,839	1,448,374	1,518,823	1,562,224
전체기업 수출액	7,008,076	7,332,745	8,493,156	8,630,921	8,731,753
중소기업 비중(%)	19.28	18.11	17.05	17.60	17.89

자료 : 2007年 中小企業白皮書

<최근 3년간 산업별 중소기업 수출액 증감>

(단위 : 백만 대만달러)

	2004	2005	2006
농·림·어업, 목축업	2,031	2,186	1,608
광업·토석채굴업	463	440	407
제조업	957,873	1,042,667	1,083,456
수도·전기·연료업	177	100	92
건설업	15,548	13,972	13,549
도·소매업	417,806	417,182	426,061
숙박·요식업	1,817	818	571
운수창고· 통신업	36,999	26,520	21,327
금융·보험업	308	338	226
부동산·입대업	779	757	731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12,036	11,138	11,462
교육 서비스업	16	5	7
의료보건·사회복리서비스업	8	2	2
문화운동·레저서비스업	735	651	622
기타 서비스업	1,779	2,045	2,104
총계	1,448,374	1,518,823	1,562,224

자료 : 2007年 中小企業白皮書

2. 중소기업 산업 육성 정책

□ 중소기업 산업 육성 정책 개요

○ 중소기업 산업 육성 정책은 중소기업발전조례(中小企業發展條例, 1991년 2월 4일 재정)에 근거함.

○ 특성

- 대만의 중소기업 육성정책은 중소기업이 자생력을 배양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경영상의 각종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자문과 진단분석을 지원하는 것을 위주

- 이외에 자금융통 방면의 애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일정액을 부담

○ 지원규모

- 중소기업 대상 정부조달 : 2006년도 중소기업 대상 정부조달금액은 총 7,043.59억 대만달러로 대만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조달비중은 74.7%이며 전년도 비중(74.2%)에 비해 다소 증가했음.

- 중소기업 산업육성 보조금 지원

<정부기관별 중소기업 산업육성 보조금 지원규모, 2006년 기준>

(단위 : 대만 천달러)

기관명	총결산	보조금 지원금액 (중소기업 지원금 비중)
中小企業處	6,921,132	6,921,132 (100%)
工業局	4,461,981	2,721,320 (60.99%)
國際貿易局	3,448,787	2,928,711 (84.92%)
商業司	1,447,564	493,251 (34.07%)
技術處	18,561,394	8,124,954 (43.77%)
投資業務處	176,736	73,458 (41.56%)
합계	35,017,594	21,262,826 (60.72%)

자료 : 2007年 中小企業白皮書

- 중소기업 대상 대출 지원 : 중소기업의 자금조달부담을 해소하고 융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중소기업 대상 프로젝트성 대출서비스를 다수 제공하고 있음.

□ 중소기업 산업 육성 정책 사례

○ 대만 경제부 중소기업처는 보다 적극적으로 중소기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해 크게 6대 핵심정책과 4대 보조정책을 실시, 세부 100여개의 중소기업 지원육성 프로젝트를 마련함.

○ 6대 핵심정책

① 자금융통 강화 지원

- 관할부처 : 경제부 중소기업처 등

- 중소기업은 일반적으로 사업규모가 작아 재무계획 관련 능력이 부실하고, 재무정보의 투명도가 낮은 편으로 신용조건이 맞지 않아 금융기관에서 운영자금 대출 시 장애요소로 작용되고 있음.

- 이와 같은 중소기업의 자금조달부담을 해소하고 융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여 개에 달하는 중소기업 대상 프로젝트성 대출 상품을 제공하고 있음.

<중소기업 대상 프로젝트성 대출종류>

명칭	용도							담당기관
	토지	사업용	기계설비	신기술	전자화설비	자금조달	기타	
중소기업 지원 대출(제7기)	O	O	O			O		대만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 지원 대출(제9기)	O	O	O	O	O	O		대만중소기업은행
전통산업 진흥 지원 대출(제2개)	O	O	O	O	O	O		兆豊國際商業銀行
중소기업 기반 강화 지원 대출(제5기)	O	O	O	O	O			경제부 중소기업처
자동화 기계설비 구매 지원 대출(제10기)			O		O			兆豊國際商業銀行
민영사업 오염방지설비 저리대출(제6기)			O		O			兆豊國際商業銀行
에너지 절약성 설비 구매 지원 대출(제2기)			O					兆豊國際商業銀行
소기업 창업 대출		O	O		O	O		행정원 노동위원회
청년 창업 대출		O	O		O	O		청년창업자문서비스센터
여성창업 소액대출		O	O			O		행정원 노동위원회
산업연구발전촉진 지원 대출				O				대만중소기업은행
디지털 콘텐츠산업 및 문화산업 지원 대출	O	O	O		O	O		경제부 공업국
연구개발 환경조성 지원 대출	O	O	O	O	O	O		경제부 공업국

자체브랜드 해외마케팅 지원 대출			O				O	경제부 국제무역국
관광산업장려 지원 대출	O	O	O		O			교통부 관광국
지방 특색산업 발전 지원 대출	O	O	O		O	O		경제부 중소기업처
수출지원대출			O	O				중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 대출			O					중국수출입은행
해외건축 지원 대출			O				O	중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 재해복구 지원 대출	O	O	O			O		경제부 중소기업처
중소기업 소액간편대출			O		O	O		경제부 중소기업처
국내민영기업 국제특허권 소송 대출						O	O	경제부 중소기업처
유통서비스업 지원 대출	O	O	O	O	O	O		대만은행
해외진출 대만기업 리턴투자 지원 융자	O	O	O	O	O	O		경제부 공업국
해외교포기업 리턴투자창업 지원 대출		O	O			O		중화민국교포위원회

자료 : 經濟部 中小企業處

- 또한, 재정경제계의 전문가로 재무금융고문단을 결성하여 중소기업의 재무관리, 회계제도, 세무제도 등 각종 자문 서비스를 실시하며 기업의 재무회계 관련문제 진단분석 및 개선방안 구상 등의 지원 실시

- 그 외에도 정부의 대 중소기업 직접투자를 실시하여 중소기업의 발전에 일조하고 중소기업 육성 지원 정책의 집행강화를 도모하고 있음. (10년 동안 목표 투자액은 100억 대만달러임.)

② 연구개발 보조금 지원

- 관할부처 : 경제부 기술처, 공업국, 상업사 등

- 대만 중소기업은 제조업에 종사하는 업체 비중이 90% 이상에 달하고 있으며 기술 및 상품 연구개발상의 자금부족문제에 접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정부가 일정 자금을 보조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함으로 중소기업의 기술 및 상품 연구개발상의 자금 부담을 해소.

- 주요 지원 프로젝트별 지원규모
* 소기업 연구개발 지원 : 최저 100만에서 최고 5,000만 대만달러 보조금 지원
* 산업별 기술개발 지원 : 연구개발비용의 30~50%까지 보조
* 혁신기술응용 및 서비스 연구개발 지원 : 300~500만 대만달러 지원
* 전통산업 기술개발 지원(상품개발·상품설계분야) : 연구개발비용의 50%까지 보조
* 서비스업 연구개발 지원(신규 경영·마케팅방식 등) : 최고 250만 대만달러 지원

③ 경영수준 향상

- 관할부처 : 경제부 상업사, 공업국

- 중소기업의 기술향상과 전자화 시스템 도입, 품질관리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부문에 대한 각종 자문 서비스 및 포럼 개최 등으로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유도함.

④ 마케팅 지원 및 브랜드 강화

- 관할부처 : 경제부 국제무역국

- 전반적으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인지도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해외시장정보제공 및 업체간 연계 등의 해외시장 개척의 징검다리 역할을 담당하는 동시에 우수한 마케팅 환경조성에 주력

· 업체를 대신하여 해외 시장의 시장성을 검토 분석하는 역할 수행
· 전시 컨벤션 산업 발전 촉진으로 해외마케팅 판로 확대
· 현지 업체의 상품정보와 타깃 시장을 근거로 해외 바이어 물색 및 중계역할 담당
· 자체 브랜드 해외마케팅 지원 대출을 비롯해 매년 우수상품을 선발하여 시상 수여함으로서 업체들의 브랜드 강화 장려

⑤ 창업육성 지원

- 관할부처 : 경제부 중소기업처

- 전국 각지에 소재하고 있는 70여 개의 고등교육기관(대학) 및 연구기관 내에 창업육성센터를 설립하여 각종 산업분야의 창업 시 설비, 기술, 자금, 관리 등 다방면의 자문서비스 제공

- 창업자의 창업기획서 등을 검토하여 일대일 현장참여지도 및 진단 분석을 통해 성공적인 창업 지원

- 정기적으로 신규 우수 벤처기업을 선발하여 상금 수여

⑥ 지방경제 활성화

- 관할부처 : 경제부 상업사, 공업국, 중소기업

- 레저관광산업이 부상되면서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의 고유특색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문화관광산업 및 지역 상권에 초점을 맞추고 관련 자문 서비스 및 인재양성을 지원함.

○ 4대 보조적 정책

① 법률자문

- 관할부처 : 경제부 중소기업처

- 경영상에 봉착할 수 있는 법률적인 문제 해결 상담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 148명의 자문변호사단을 결성하여 각종 관련 법률 상담서비스를 제공

- 중소기업의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고 소비자와 기업간의 신뢰도 구축을 통해 보다 수준 높은 경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소비자 보호 관련 규정 등에 대한 설명회 및 상담회 개최

② 인재배양

- 관할부처 : 경제부 무역국, 중소기업처 등 다수 정부기관

- 기존의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전환하고 있는 과도기 상에 인재결핍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외국어를 비롯한 마케팅, 무역실무 등 각종 정부지원 교육 강좌를 개설하고 각종 산업분야의 직업훈련 등을 실시

③ 토지혜택

- 관할부처 : 경제부 공업국, 행정원 경제건설위원회

- 중소기업의 생산부지 취득상의 비용부담 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유 토지 및 국영 산업단지 내 공장 부지를 임차할 경우, 임차료의 일정금액 감면

- 주요 지원 프로젝트

· 국유 산업단지 내 입주 시 공장건립과 시범운영기간 내에 일정한 소득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초기 2년 동안은 임대료의 전액을 면제해 주고, 향후에는 매 2년마다 임대료 지급비율을 60%, 80%, 100%로 점진적으로 조정하여 업체의 임대료 부담을 해소

· 국유 토지 임대 시, 초기 4년간은 임대료의 전액을 면제해 주고, 향후 6년간은 임대료의 50%를 면제해 주는 제도

④ 지원서비스기관 네트워크 강화

- 대만 전역에 분포되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접근성으로 높이기 위해 전국 각지의 정부기관과 각종 산업별 민간협회 및 중소기업 협회 간의 네트워크를 보다 유기적으로 결속하여 전국 각지의 수십 개의 지원서비스 창구를 마련

- 지원서비스 창구 분포 현황
· 중앙 정부기관 : 3개
· 중소기업 지원서비스 센터 : 24개
· 중소기업 협회 : 22개
· 공업협회 : 24개
· 상업협회 : 25개

3. 중소기업 수출진흥 정책

□ 중소기업 수출진흥 정책 개요

○ 대만의 경우, 수출진흥 정책을 따로 마련하고 있다기보다 중소기업 육성 정책 등을 통한 중소기업의 자생력과 경쟁력의 강화를 기반으로 전시회 등의 해외마케팅을 지원하여 자연스럽게 대외 수출 진작을 유도하고 있음.

□ 중소기업 수출진흥 정책 사례

○ 상술된 중소기업 육성 정책 중 마케팅 지원 및 브랜드 강화 전략 외에도 마케팅 지원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지원 정책은 아래와 같음.

- 정책명 : 무역추진업무지원실시방안(辦理推廣貿易業務補助辦法)

- 관할부처 : 경제부 국제무역국

- 지원내용 : 전반적인 대외무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일환으로 무역추진업무 보조법을 실행하여 전시회 개최 및 참가를 비롯하여 해외시장개척단, 무역인재양성, 무역관련 자료발간 등 각종 무역발전 관련 행사의 일부경비를 지원하여 해외마케팅의 기반을 다짐.

- 지원내역 : 2007년도에는 총 363백만 대만달러가 집행됨.

Ⅲ. 국내 중소기업 수출진흥 정책 시사점

1. 주요국의 중소기업 지원프로그램 개요

□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에 집중

○ 독일, 오스트리아, 대만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들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독일은 중소기업 이니셔티브, 오스트리아는 중소기업진흥법, 대만은 중소기업발전조례를 통해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프로그램들을 시행함.

국가	대표적 중소기업 육성 정책 및 프로그램
독일	중소기업 이니셔티브(Mittelstand Initiative), 2005년 시행 - 중소기업에 우호적인 방식으로 제도 정비 - 중소기업 설립에 필요한 제도적 절차 간소화 - 창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강화 - 이노베이션 역량 강화 - 인력 교육 강화 - 중소기업의 재정상태 향상을 위한 정책 - 벤처 캐피탈의 투자 활성화 정책
오스 트리아	중소기업진흥법(KMU-Foerderungsgesetz) 2006 - 특정분야 재투자 이익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 - 최대 3년까지의 손실 발생분을 이익발생 회계연도에서 공제 - 소기업 면세 대상 소득 규모 상향조정 : 3만 유로로 조정
대만	중소기업발전조례(1991년 재정) 6대 핵심정책 - 자금융통 강화 지원, 연구개발 보조금 지원, 경영수준 향상 지원, 마케팅 지원 및 브랜드 강화, 창업육성 지원, 지방경제 활성화 지원 4대 보조정책 - 법률자문, 인재배양, 토지혜택, 지원서비스기관 네트워크 강화

□ 해외시장 진출지원 : 해외시장 다변화 및 리스크 관리

○ 독일, 오스트리아, 대만 3개국은 금융지원, 브랜드강화지원, 전시회 참가 지원 등의 해외시장 진출지원 프로그램과 함께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지역 다변화와 위험최소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함.

국가	중소기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
독일	**해외시장 진출 지원 방향** – 위험 최소화 – 대외진출 활동에 대한 저렴한 융자 – 해외 전시회 참여 지원 **대표적 지원 기관 및 프로그램** – 연방경제기술부 (BMWI) : 수출지원 정책 기본 틀 마련 – 독일대외무역진흥청 (Bfai) : 독일기업 해외시장진출 지원 – German Center : 9개 도시에서 해외에 진출한 독일 중소기업에게 사무실 및 전시장을 싼 임대료로 제공하고 경영과 마케팅 지원
오스 트리아	**해외시장 진출 지원 방향** – 수출 기업수의 증대 – 수출 지역 다변화를 통한 지역적 한계의 확대 – 주로 관광분야에 국한된 서비스 수출의 다양화 및 확대 – 대외 직접 투자의 산업별, 지역별 다변화 **대표적 지원 기관 및 프로그램** – Go International : 중소기업 국제화 촉진 프로그램 – Exportfonds GmbH : 대표적 수출 금융 지원 기관 – Austria Control Bank : 수출 보증보험
대만	**해외시장 진출 지원 방향** – 수출진흥 정책을 따로 마련하기보다는 중소기업 육성 정책 등을 통한 중소기업의 자생력과 경쟁력의 강화에 중점 **대표적 지원 기관 및 프로그램** – 마케팅지원 및 브랜드강화 : 우수한 마케팅 환경조성 – 무역추진업무지원실시방안 : 각종 무역진흥 행상 경비 지원

2.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사점

□ 단순 수출지원을 넘어선 복합적 글로벌 경쟁력 제고 필요

○ 세계시장 통합과 국내 대기업의 글로벌 경영 활동 확대로 대기업 납품에 의존하는 중소기업은 납품시장 축소에 따른 판매위축 등 국내에서의 경영환경이 어려워지고 있음.

- 우리 중소기업도 해외시장진출을 확대하고 있으나 아시아시장과 저부가가치 제품에 편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이들 중소기업의 역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단순 해외시장 마케팅 지원과 생산비용 절감을 위한 해외투자진출지원을 넘어서 고부가가치 활동을 학습할 수 있는 시장으로 진출을 확대해야 함.

- 선진기업의 R&D, 디자인, 경영전략 등 고부가가치 획득을 위해 신흥시장은 물론 EU, 미국 등 선진국 시장으로 우리 중소기업의 시장진출 다변화 노력을 강화해야 함.

- 선진국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활용하여 부족한 역량을 키워 나가면서 점차 글로벌 중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정부와 유관기관의 지원활동은 중소기업이 선진시장에서 다양한 시장활동과 선진기업들과 전략적 제휴 활동 등에 직접 참여하면서 경험을 축적해 나갈 수 있도록 측면 지원을 강화해야 함.

□ 중소기업 자생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강화

○ 글로벌 역량 향상을 위해서는 기업가정신 고취, 기술 혁신과 같은 국내에서의 내부역량 진작을 위한 지원 시스템을 동시에 강화하는 것도 필요함.

2008년 KOTRA 발간자료목록

□ GBR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08-001	한-EU FTA가 수출/투자유치에 미치는 영향 : 유럽 바이어 및 대한 잠재투자가 설문조사 결과	2008.1
08-002	대중 섬유수입규제 해제와 세계 섬유시장의 변화	2008.1
08-003	일본 소비패턴 동향 및 시사점	2008.2
08-004	주목해야 할 이머징 마켓의 소비 패턴 변화	2008.3
08-005	아세안 주요국 프랜차이즈 산업 분석 및 진출 전략	2008.3
08-006	유럽 그린구매 동향과 진출확대를 위한 키워드	2008.3
08-007	한-GCC FTA 체결에 대한 시각 및 반응	2008.3
08-008	중국의 최저임금 인상 동향과 전망	2008.4
08-009	중동・아프리카 프론티어 시장 유망품목과 성공전략	2008.4
08-010	중남미 보안시장 동향	2008.4
08-011	중국・인도・일본의 아프리카 시장쟁탈전	2008.4
08-012	러시아기업의 해외진출확대에 따른 우리의 대응방안	2008.4
08-013	2008 서남아시아를 주목하라	2008.4
08-014	미국 FDA 통관정책 및 우리 상품 통관거부에 대한 대응	2008.4
08-015	노동계약법 실시조례(초안)의 해석	2008.5
08-016	해외자원개발 피해사례 및 국가별 유의사항	2008.5
08-017	주요국의 서비스장벽 현황과 대응방안	2008.6
08-018	세계 섬유시장변화와 우리 해외생산전략	2008.6
08-019	베트남 경영환경 변화와 대응전략	2008.6
08-020	해외무역관에서 바라본 2008년 하반기 수출전망	2008.6
08-021	중, 하이테크 기술기업 우대혜택 변화와 전망	2008.6
08-022	대중국투자 뉴 트렌드와 시사점	2008.6
08-023	중동 주요국의 제조업 육성정책 및 우리의 진출전략	2008.6
08-024	떠오르는 마그레브 시장, 이렇게 공략하라	2008.6
08-025	베이징올림픽의 중국 소비경제 효과	2008.6

08-026	초고유가 시대; 해외 주요국의 에너지 절약상품 동향	2008.7
08-027	아프리카 이동통신시장 빅뱅	2008.7
08-028	유가상승에 따른 주요국 경제적 파급효과 및 대책	2008.7

□ KOTRA자료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08-001	2008년 지역별 진출확대 전략	2008.1
08-002	러시아 투자실무 가이드	2008.1
08-003	중국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 10대 판례집	2008.2
08-004	멕시코 투자실무 가이드	2008.4
08-005	청산매뉴얼	2008.5
08-006	중국지재권대리사무소 디렉토리	2008.5
08-007	중국 유통시장 진출 가이드	2008.5
08-008	EU 현지 기업들의 REACH 대응사례와 시사점	2008.5
08-009	중국 신노동법 下 인력관리 매뉴얼	2008.5
08-010	2007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연차보고서	2008.6
08-011	Foreign Investment Ombudsman Annual Report 2007	2008.6
08-012	북미 유통시장 진출 가이드	2008.6
08-013	중국투자가 심층조사 보고서	2008.6
08-014	말레이시아 투자실무가이드	2008.6
08-015	2007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2008.6
08-016	중국 환경시장 진출가이드	2008.7
08-017	유럽 대형 IT 유통업체 진출 가이드 - 7대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2008.7
08-018	2008년 세계 주요도시의 생활여건	2008.7
08-019	Q&A로 본 베트남투자 A to Z	2008.7

□ 설명회자료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08-001	2008 세계시장진출전략 설명회	2008.1
08-002	2008 세계시장진출전략 비즈니스포럼	2008.1

08-003	2008 세계시장진출전략 설명회 및 비즈니스 포럼 가이드북	2008.1
08-004	한-아세안 FTA순회설명회 (Korean -Asean FTA Seminar)	2008.5
08-005	몽골투자포럼(Mongol Korea Investment Forum)	2008.5
08-006	러시아 우랄시장 설명회	2008.5
08-007	극동 시베리아 개발 프로젝트 설명회 및 상담회	2008.5
08-008	중국 사업환경 변화와 대응전략 설명회	2008.5
08-009	중동 산유국 진출전략 설명회 및 상담회	2008.6
08-010	Global Project Plaza 2008	2008.6
08-011	한일 에너지절약환경 포럼	2008.6
08-012	2008 한중일산업교류회 심포지움	2008.6
08-013	러시아 중앙아시아 진출전략 설명회	2008.6
08-014	2008 한중일산업교류회 심포지움	2008.6
08-015	미국 유통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2008.6

작성자

통상전략팀	김성재 과장
대만무역관	구경회 과장
빈무역관	엄익현 과장
프랑크푸르트무역관	유성천 과장

Global Business Report 08-29

중소기업 :
글로벌 중소기업을 향해

발 행 인	조 환 익
발 행 처	KOTRA
발 행 일	2008년 7월 23일
주 소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우 137-749)
전 화	02) 3460-7114(대표)
홈페이지	www.kotra.or.kr

Copyright ⓒ 2008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